

아동의 음악 감수성 계발을 위한 수업 연구

김 영 미* · 홍 정 연**

본 연구자는 아동의 음악 감수성 계발을 위해 12주간의 음악 활동을 하였다. 수업은 고든의 예비 오디에이션의 단계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아동들은 다양한 소리 탐색과 더불어 음악에 대해 자유롭게 신체 표현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하기, 악기연주하기 활동 등을 통해 선율, 리듬, 화음 학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을 듣고 예술 음악을 감상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음악 감수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궁극적으로 음악을 즐기게 하는데 목적을 둔 수업지도안의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 아동음악교육, 음악 감수성, 음악 수업지도안, 예비 오디에이션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이론적 배경

1. 아동 음악 교육의 구성요소와 특성
2. 음악 감수성 교육과 음악 듣기
3. 아동을 위한 음악 교수법

III. 음악 감수성 계발을 위한 지도 방안의 실제

1. 수업 지도안의 방향
2. 수업 지도안의 실제

IV. 결론 및 제언

* 경남대학교 강의전담교수

**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아동은 타고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0세에서 9세의 시기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을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적절한 음악적 경험과 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음악 감수성(potential)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Gordon, 1997). 음악은 매일 매일 삶의 가치를 높여 주고, 평생을 좌우할 능력과 감수성을 키워준다. 어릴 때 이러한 음악적 경험이 부족하면 결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준다. 그러나 이렇게 평생을 좌우할 만큼의 잠재력이란 결코 책으로, 머리로 얻는 음악적 지식은 아닌 것이다.

감수성 계발을 위한 음악교육은 다양한 노래와 신체표현, 재미있는 음악게임과 합주를 통해 아동이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음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음악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민여정, 2011). 이를 통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쌓게 되며 교사 또는 친구들의 연주를 듣는 연습을 통한 ‘배려심’과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맞추어 가는 합주 활동을 통한 ‘조화’를 학습하게 된다.

우리나라 아동 음악교육은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 및 창의력을 기르며, 다양한 예술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즐기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활동”(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2008, p. 131) 즉 특정 개념이나 기능 습득 보다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음악 감상 능력과 감수성 계발을 위해서 신체발달 단계에 맞는 음악 활동을 제시하고 아동들이 예술 음악 듣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음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음악 교육활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3개월간의 12회 수업을 진행하며 음악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경험하여 ‘들리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 감수성과 음악 창의성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고, 실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2주에 걸쳐 14명의 아동들과 함께 매주 신체

표현, 찬트(chant), 노래부르기, 음악 동화, 음악 상황극, 다양한 악기연주하기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움직임과 경험, 그리고 음악 놀이 교수-학습 활동을 연구하였다. 4세와 5세반은 학부모와 같이 하는 활동을 수행하였고 6세와 7세반 그리고 9세와 10세반은 아동들만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1명의 주교사와 2명의 보조교사가 같이 교수-학습활동을 하며 음악 감수성 계발을 위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다른 연령으로 구성된 세 그룹에게 동일한 제재곡과 교수법을 사용하였고 음악적 개념과 신체 표현을 연령별로 심화시키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고든의 음악 감수성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래하기와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와 함께 악기교육과 노래학습을 위한 오르프와 코다이 교수법을 활용하였고 신체 활동은 달크로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몸동작 반응과 자유로운 몸짓(fluent movement)으로 구성하였다. 2011년 9월 수업을 위한 지도안 연구를 시작하였고 12월부터 2012년3월까지 교사와 보조 교사를 교육하였다.

아동들의 반응을 조사하기위해 매 주 수업 후 12명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수업 효과에 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교사회의를 통해 수업 중 아동들의 반응과 움직임을 검토하며 각 아동의 음악적 변화와 앞으로 필요한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학부모님 면담에서 이루어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학습한 음악 활동을 반복하시나요?
- 아동들이 학습 후 가정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리듬 찬트를 하나요? (일부분의 선율을 노래하는 행위도 포함)
- 수업에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이 수업을 기다리나요?
- 수업 후 아동들에게 변화가 있나요? (음악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
- 다음에 이러한 수업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본 연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수성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개발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동의 음악 감수성 계발을 위한 실제 지도에 사용한 악곡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직접 작곡하거나 기존의 노래에서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심화 과정으로 예술 음악 감상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의 학생들의 지역적 특성과 교실의 환경 문제 연령의 다양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지도 교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업내용이므로 훈련받지 않은 교사가 교수-학습방법으로 수행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 음악교육의 구성요소와 특성

1)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구성요소

청각은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 기관으로 뇌세포의 활발한 활동을 돕는 데에 가장 유용한 요소가 음악을 통한 청각 훈련이다(심성경 외, 2008). 이때 적절한 음악지도는 아동을 예술적이며 창의적으로 성장하여 전인격을 형성하게 한다(김정화, 2000).

(1) 교사의 자질: 무엇보다도 음악교육에서 교사의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이 높을수록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음악의 질이 높아진다. 교사는 ①개개의 아동에게 최적의 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안내자 역할; ②아동의 음악적 흥미나 사전지식을 이해하고 비형식적 또는 형식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역할; ③음악과 관련지어 아동의 성취와 진보에 대해 교사는 끊임없이 기록하는 역할; ④아동이 스스로 음악과 관련된 개념을 형성하고 음악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질문과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 ⑤다양한 음악활동을 제공해주기 위해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구성자의 역할; ⑥아동의 발달적 수준 및 진보를 평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안재신, 2002).

(2) 학습 환경: 음악 감수성은 태어나면서 빠르게 잃어가지만 적절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자신이 태어나며 가지고 있던 감수성으로 회복하게 된다(Gordon, 1997).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러한 학습 환경을 이루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교사, 가정, 교육시설이다(임부연 외, 2010).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환경과 관심 그리고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음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교육시기: 음악학습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감각기능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하는 3세부터 9세경까지라 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이해력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때 까지 놀이를 통해 스스로 음악을 느끼게 하거나 노래하는 시간을 통하여 리듬감각과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여러 종류의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과 친근감을 갖게 해야 한다(안재신, 2000).

2) 아동기 음악 발달의 특성

아동에게 맞는 올바른 지도와 적절한 환경구성을 제공해 줄 때 비로소 음악적 능력을 최대로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음악교육과 관련지어 연구하여야 한다(김소향, 2006).

- 대근육이 소근육보다 먼저 발달하고 오른손/왼손잡이가 결정된다.
- 주의력이 대단히 짧고 흥미와 활동에 의지하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개인적이지만 즐거운 것은 반복하려 한다.
- 주위 환경에 호기심이 많으며 모방하기를 즐긴다.
- 비교적 작은 집단에서 협동적인 연주를 시작할 수 있다.
- 목소리는 작고 음높이와 화음 감각은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음악적 발달 특성을 토대로 한 아동음악교육의 중심은 음악적 구조에 대한 기본개념을 갖고 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으로 음악의 가락, 리듬, 화음, 음색, 형태 등과 그들의 상호관계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 활동들을 통해 아동의 인지, 정신, 정의적인 면을 통합하여 음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므로 음악교육 활동은 음악적 발달 단계와 성숙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게 해야 한다.

2. 음악 감수성 교육과 음악 듣기

1) 음악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과 음악 감수성 교육의 방향

“인간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계발시키기 위한 음악교육은 현대의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에스더, 2003) 음악 감수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아가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음악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음악학습을 통해 진정으로 음악을 즐기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음악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의 깊이는 음악 감수성에서 비롯한다.

또한 어린 아동들은 음악을 통하여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가창이나 신체 표현, 리듬합주와 가락합주를 통하여 유아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감정과 정서를 아름답게 순화하여 원만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자기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된 사회인으로 자라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음악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교사는 아동이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음악에 다가설 수 있게 자발적 탐색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선율, 조성 및 리듬과 박자의 음악재료로 쌓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음악에 집중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음원이나 기계적 매체를 사용하기보다는 교사의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하여 아동은 듣거나 같이 노래하며 리듬 또는 소리의 어울림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스러운 연속 동작을 중심으로 신체의 여러 움직임들을 통한 음악을 체험함으로써 리듬감 발달을 도모하고 표현력을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이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한다. 언어적·논리적인 능력에 제약이 있는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음악적 행위는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이고 평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슬픔, 기쁨, 공상, 놀람 등의 모든 감정적 느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진다(Radocy & Boyle, 2001). 따라서 음악교육은 유아의 음악적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음악적 문법이나 형식을 강요하지 않은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느낌을 전달하게 해야 한다.

음악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학습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내는 행위 즉 다른 아동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맞추는지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경험한다. 음악은 이러한 의사소통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이자, 구체적인 결과물, 즉 소리로 드러나는 결과물이다(하정희 외2, 2010). 이러한 활동으로 소리의 어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아동은 그 소리에 귀와 눈이 열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조절하면서 소리의 어울림을 찾아간다. “유아는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며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는 감각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하정희, 2009)

2) 아동 음악교육에서 음악 듣기의 의미

‘듣기’는 가장 기초적인 음악 활동으로 아동들은 소리를 듣고 구별하는 첫 단계를 시작으로 놀이 방식으로 활동하며 음악개념을 깨우쳐 간다. 그 과정에서 아동들은 음악 작품을 접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음악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음악 활동을 하는 동안 귀를 기울이며 음악에 집중하게 되고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고 탐구력과 상상력도 길러준다. 또한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몸이 유연하게 되고 자신의 느낌을 그리면서 창의력과 표현력이 향상된다(오정숙, 권정희, 2007).

아동기는 음악적 능력 성장과 함께 음악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는 연령으로 모든 음악적 자극을 특별한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곡들을 들려주어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음악적 선호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독자적인 음악 자아형성이 이루어진다.

아동은 음악을 통해서 생각과 느낌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악기를 두드리며 소리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거나 춤을 추는 자연적 신체활동으로부터 출발하는 음악활동을 할 때 아동은 음악적 개념을 쉽고 즐겁게 습득한다(이에스더, 2003). 그리고 이를 통해 타고난 신체적 리듬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사고와 지식 습득의 학습 과정만으로는 계발할 수 없는 ‘잠재력’을 발견한다.

아동은 일상의 소리를 탐색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창조한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는 음악적 재료가 될 만한 풍부한 음악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음악적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창조행위를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창조한 작품을 대할 때 아동은 자랑스러움과 ‘창조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음악적 환경이 창조하는 태도와 습관을 만들게 될 것이다(하정희, 2009). 결론적으로 유아에 적합하게 선정되고 구성된 클래식 음악 작품과 교수매체로 수업을 구성하게 되면 아동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음악을 듣고 감상하게 된다.

3. 아동을 위한 음악 교수법

1) 음악교육철학자들의 교수법

(1) 고든

고든 음악교육의 핵심인 ‘오디에이션(audiation)’은 음악교육의 중요한 기초적 능력이며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아동들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악을 생각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이 언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위해서는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읽고 쓰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오디에이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소리(sound)가 아동의 마음에서 오디에이트(audiate) 될 때 비로소 음악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학습하는 활동의 기초이다. 아동 음악교육에 적용되는 예비 오디에이션의 위계와 단계는 <표 1>과 같다(Gordon, 1997).

<표 1> 예비오디에이션의 위계와 단계

유형	단계	특징
문화화 (acculturation)	흡수(absorbtion)	단순히 음악을 듣고 흡수
	무작위적 반응 (random response)	음악적 웅얼이
	의도적 반응 (purposeful response)	음악에 대한 주관적 반응
모방 (imitaion)	자기중심탈피 (shedding egocentricity)	전반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암호 해독 (breaking the code)	모방
동화 (assimilation)	자기성찰(introspection)	음악적 세밀함의 차이점 인식
	조화(coordination)	음악적 조화

각 단계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준비 단계로서 학습자는 음악 적성이 허락하는 만큼 모든 유형과 단계를 연속적 학습 활동의 모든 단계를 학습해야 한다. 아동은 개인적 차이와 관계없이 한 단계(level)씩 성취하면서 단순한 모방과 암기 교육이 아닌 음악을 이해하는 단계 즉 ‘오디에이션’을 이루게 된다.

(2) 오르프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은 아동의 창의적인 즉흥 연주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총체적 체험 즉 동작하기, 말하기, 노래하기, 악기 연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이 기초적인 음악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이끌어 내고 이를 놀이, 상상, 게임, 노래하기 등의 방법으로 잠재된 감수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다음은 교수를 받는 음악이 아닌 아동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악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초적 음악(primitive musik)’ 교수법의 특징이다(임미경 외, 2010).

- 놀이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아동의 흥미와 열의 그리고 창의성 유도
- 다양한 연주 방법 즉, 신체 타악 활동으로부터 일반 악기로의 발전
- 내면의 음악을 표현하는 즉흥 연주
- 자유로운 신체 표현과 지휘

(3) 코다이

코다이 교수법은 노래하기 활동이 중요하다. 코다이는 음악성을 계발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심성경 외, 2003).

- 말, 동작, 노래와 노래게임을 통한 리듬감각의 계발
- 노래하기 활동을 통한 멜로디 감각의 계발

- 멜로디와 리듬 학습, 다양한 조와 음자리표 그리고 민요와 예술악곡을 통한 다성(polyphonic)능력의 계발
- 손기호를 통한 내청능력의 계발
- 멜로디의 리듬 인식 그리고 계명창법의 가창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악적 능력의 계발

(4) 달크로즈

자신의 내재적 감정을 음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악기는 ‘몸’이다. 특히 신체의 움직임과 음악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고리인 운동 감각(kinesthetic sense)을 계발하기 위해 청각기관과 더불어 신체의 모든 부위를 훈련한다. 음악적 리듬에 대한 신체 전체의 반응을 체계화한 유리드믹스(Eurhythmics), 음악을 읽고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솔페즈(Solfege), 모든 음악행위에 통합되어 표출되는 즉흥연주 등이 교수법이다(임미경 외, 2010). 더불어 다음의 핵심 사항을 고려하여 수업한다.

- 음악 학습의 시작인 듣기 훈련
- 신체와 정신의 상호 작용에 의한 음악적 이해
- 개인의 수준에 따른 단계적인 음악적 경험
- 근운동 감각과 음악의 연계 훈련
- 감각적인 음악은 학습 후 언어적인 표현

2) 음악교육철학을 적용한 감수성 계발 지도안 작성

(1) 신체표현과 함께 하는 음악수업

어린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신체나 표정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 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사가 잘 전달되었을 때 만족한다. 따라서 교사는 신체 표현과 음악 지도를 함께 병행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노래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지도안에서는 아동의 음악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여 근운동 감각(kinesthetic sense)을 훈련한다.

(2) 놀이와 함께하는 음악수업

어린이의 일상적인 생활인 놀이 활동은 신체발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호기심을 자극하여 표현 능력을 길러주는 도구이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이와 평소에 좋아하는 놀이 등을 선택하여 음악수업에 도입하여 음악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본 지도안은 목소리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행동을 리듬 노래와 리듬 게임으로 만들어 아동 스스로가 리듬을 창작하고 친구들과 리듬 합주를 하며 배려와 양보를 배우며 창의성을 키우도록 하였다.

(3) 악기와 함께하는 음악수업

악기의 사용은 풍부한 음악 세계를 경험하고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노래 지도에 악기들을 사용하여 리듬, 음의 강약, 그리고 악기의 음색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교사는 언어적으로 설명하거나 특정 방법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같이 음악적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본 지도안은 신체 타악 활동과 다양한 오르프 악기들의 소리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리듬을 경험하고 내청을 경험하고 음정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익숙해지면 심화 과정의 활동을 적용한다.

(4) 화음노래부르기와 함께하는 음악수업

선율 노래하기 활동 후 음정 식별하기와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기인 내청(innerhearing)훈련 그리고 여러 성부와 같이 노래하기를 시도한다. 돌림노래나 교사의 목소리를 이용한 저음반주의 경험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화음을 경험하게 하며 다성부 선율 악곡을 노래하고 2개 이상의 선율 오스티나토를 선율과 같이 노래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Ⅲ. 음악 감수성 계발을 위한 지도 방안의 실제

Dalcroze의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한 교육, Kodály의 가창 지도 및 악보 읽기 교육, Orff의 총체적 교육 즉 chant, 노래부르기, 다양한 악기연주하기 등과 고든의 음악 감수성학습을 통해 아동의 음악 잠재력을 계발하는 수업을 연구하였다. 1) 신체적 음악적 연령에 따른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음악활동을 통한 오디에이션(audiation)능력 계발과 음악 감수성 계발 2) chant, 움직임(movement), 소리탐색(sound exploration)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적 창의성 계발 3) 유리드믹스(eurhythmics)에 바탕을 둔 신체 활동을 통한 리듬과 선율 학습 4) 다양한

음악 도구 탐색과 함께 하는 합주 5) 언어, 언어적 표현, 신체 표현 등의 활동으로 12주간의 수업을 구성하였다(표 2).

주	제 목	주요학습개념	학습활동	심화학습
1	동물원에 갔더니	2/4의 리듬의 신체표현과 연주	리듬음절+신체표현+놀이	빠꾸기찬트, 사랑의 인사(파트너송)
2	양치해요 1	점 리듬과 16분 음표패턴, 즐거운 양치하기 활동	리듬음절, 노래부르기	유모레스크 (ABA형식+신체표현)
3	양치해요 2	점리듬, 16분 음표 리듬, 즐거운 양치하기	신체타악,합주, 노래부르기, 파트너 Song	체체쿨레 (음악 이야기 창작)
4	산왕의 궁전에서	2박 리듬과 강세, 신체표현과 연주	신체활동, 가락+리듬합주	군밤타령과 아리랑(파트너송)
5	팔짝	장조의 으뜸음	놀이+노래	안녕(독일 민요)
6	잠자리	가락에 맞는 리듬합주	제재곡+리듬오스티나토파트너 Song	Itsy Bitsy Spider(화음노래하기)
7	계단	16분음표,장조/단조, 빠름/느림	신체표현	리베르 탱고 +리듬오스티나토
8	별사탕 요정 춤	4/4박자 단위박을 신체로 표현	신체표현+놀이	스케이트왈츠 (free movement)
9	rope song	가락합주, 화음, 으뜸음 듣기	으뜸음 가락합주	Tiritomba (악기 반주 창작)
10	Animal Talk	장조의 으뜸음과 쉼표 느끼기	신체표현, 가락합주	사랑의 인사
11	캐논	화음느끼기	노래부르기, 신체표현, 화음	Pachelbel canon (노래)
12	나무 이야기	음악동화구연: 소리의 어울림과	찬트, 신체표현	Pachelbel canon (악기연주)

1. 수업 지도안의 방향

수업의 도입에서 자발적 동기 유발과 수업에 대한 낯설음과 공포감을 해결하기 위해 4-5세 연령 아동은 부모님과 같이 활동을 한다. 그리고 아동들이 교실을 자

유롭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악기만을 진열한다. 또한 자신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실 한 면은 전체를 거울로 설치하였다. 아동들과 교사는 둥글게 또는 자유롭게 섞이도록 배치한다. 즉 교사가 앞에서 인도해 나가는 가르치는 활동이 아닌 함께하는 경험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의 시작은 인사 노래를 하며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하고 아동과 부모님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선생님과 눈을 맞춰 인사한다. 이는 수업에서의 각 아동의 존재감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친밀감을 형성한다. 프랑스 동요의 선율에 가사를 창작하여 인사 노래로 활용하였고 화음의 경험을 위해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보조교사는 저음 또는 알토를 조용하게 노래한다.

앞 시간의 활동과 이미 학습한 음악에 대한 복습은 신체 표현 또는 놀이로 재구성한다. 이 때 교사는 특정 신체 표현이나 언어적 표현을 강요하지 않고 아동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기계적 반복이 아닌 다양한 활동으로 스스로 음악적 개념을 깨닫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

수업의 전개에는 노래부르기, 악기소리 탐색 또는 연주, 신체 표현 등의 주요 활동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선율과 리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사가 배제된 단음절로 선율 노래하거나 리듬 찬트와의 합주를 통해 소리의 어울림을 경험하였고, 악기와 악기 혹은 악기와 노래의 합주를 통해 양보와 배려심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수업 내용은 첫째, 교사의 모델과 시범창, 둘째, 같이 활동하기, 셋째, 창작하기의 세단계로 구성된다.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는 최소한의 언어적인 질문 또는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와 함께 아동 또는 부모들에게 특정 반응을 강요하지 않는다.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도록 반복하여 선율을 노래하거나 리듬 찬트를 한다. 아동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반복으로 노래한 후 아동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나타나면 화음노래하기, 악기로 연주하며 노래하기, 선율 또는 리듬 오스티나토에 맞추어 노래하기 등의 심화된 단계의 활동으로 진행한다. 이 때 두 종류의 심화 활동을 동시에 시작하지 않고 하나의 활동만을 진행한다. 교사는 아동들이 제재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반응을 보일 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래하거나 신체 활동을 한다.

감상 악곡은 초등과 중등 교과서에서 곡을 선택하였다. 이미 학습한 곡에 제시된 음악 개념과 연계성이 있는 악곡을 선정하여 교사가 선율을 노래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하여 신체활동, 화음 노래하기, 악기연주하기로 발전시킨다.

2. 수업 지도안의 실제

◆ 예시수업 1 : 동물원에 갔더니(신체표현과 함께 하는 음악수업)

도입부분의 인사노래에서는 신체표현(fluent moment)을 사용하여 공간과 무게를 느끼며 4분의 2박자 리듬을 직접 경험한다.

차시	1	제 재 곡	동물원에 갔더니	활동	신체표현
학습주제(차시)	리듬 ♩ ♩, ♩ ♩ ♩			수업시간	30분
학습 목표	◎ 2/4의 리듬을 신체로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다.				
준비물	리듬악기, 탱탱볼, 작은북, 에크셰이크, 마라카스, 페러쉴				

(1) 도 입(5')

인사하며 교사가 자연스럽게 아동의 이름을 넣어 노래>Hello Song)를 시작한다. 첫 시간은 박을 치지 않고 잘 듣는다. 노래하며 모두 손을 좌우로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자유롭게 박자를 탐색한다. 교사가 노래를 가사 없이 음절 ‘밤’으로 노래 부르며 무릎치기로 박을 친다. 모두 등글게 앉자 무릎치기를 하고 교사의 노래에 맞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활동을 한다. 이 때 아동들이 단위 박에 맞추어 움직이는 동안 박을 직접 경험한다.

Hello Song

1. 소 리 가 보 여 요 우 리 모 두 인 사 해 요

2. 소 리 가 보 여 요 지 금 부 터 Let' s go

○ ○ ○ ○ 안 녕 ○ ○ ○ ○ 안 녕

[악보 1]

(2) 전 개(10')

- ①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상상하여 2박자로 구성된 의성어를 창작한다. 교사는 옳고 그름을 지적하지 않고 반복해서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리듬을 고쳐간다.

- ② 아동이 답하는 동물의 소리 또는 움직임을 넣어 노래한다[악보 2].

동물원에 갔더니

외국곡

동물원에 갔더니 누가 있을까

멍 멍 멍 멍 강아지 있네

[악보 2]

- ③ 교사가 반복해서 노래하는 동안 아이들은 첫 박에만 공을 바닥에 치며 리듬을 경험한다. 교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사가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다리 구르기 활동을 하며 ‘ ♪ ♪ | ♪ ♪ , ♪ ♪ ♪ | ♪ ♪ ♪ ’ 리듬을 충분히 느끼도록 한다.
- ⑤ 함께 노래하며 아동은 작은북을 하나씩 들고 동물 소리가 나는 부분만 “멍 멍” ♪ ♪ | ♪ ♪ 그리고 “야옹 야옹” ♪ ♪ ♪ | ♪ ♪ ♪ 하며 친다.

(3) 전 개 2(10')

- ① 교사가 작은별 노래를 조용히 시작하며 아이들을 집중시킨다[악보 3].

작은별

외국곡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빛치네

동쪽하늘에서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빛치네

[악보 3]

- ②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하며, 리듬에 맞추어 원을 그리며 걷는다.
- ③ 노래를 부르며 무릎기기를 한다. 걷고 기어보는 동안에 2분 음표가 나오면 멈추어 서는 아이도 있는지 교사는 잘 살펴본다.
- ④ 2분 음표 부분에서 멈추어 섰다가 다시 걸어 보도록 안내한다.
- ⑤ 리듬악기(탐버린, 트라이앵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 4분 음표에 리듬악기를 두드리고 2분 음표 부분은 쉬도록 하는 활동을 반복한다.
- ⑥ 원 가운데 보조교사가 낙하산을 바닥에 준비하면 교사들은 낙하산을 들고 아이들은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다. 이때, 4분 음표 부분은 걷다가 2분 음표 부분은 낙하산 아래로 들어 갔다가를 반복한다.

(4) 정 리(5')

- ① 제재곡의 첫 박에만 공을 치는 모듬과 동물소리에 작은북을 치는 모듬으로 나누어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부른다.
- ② 굿바이 송을 선생님이 조용히 시작해서 두 번 부른다. 이때, 아이들이 집중하여 듣도록 조용히 부른다[악보 4].

Good-bye Song



[악보 4]

- ③ 다같이 부르도록 유도하여 여러 번 반복한다. 이곡은 놀림 노래를 해도 소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후속 수업부터는 돌림노래로 불러 보며 화음을 경험할 것을 전제로 제창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illegible]

- ② 교사가 먼저 제재곡의 앞부분만을 부르고 자연스럽게 다음 절으로 연결시키며 찬트와 후렴구를 노래한다[악보 7].
- ③ 두 모둠으로 나뉘서 파트A와 B 부분이 서로 응답노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보조교사들은 아이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각 파트부분을 도와준다.
- ④ 서로 모듬의 파트를 바꿔 부르며 자연스럽게 론도 형식을 느끼게 한다.
- ⑤ 제재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의 칫솔하기 활동을 하며 노래 부른다.

◆ 예시수업 3 : 딸국(악기와 함께 하는 음악수업)

주	3주	제재곡	딸국	활동	악기연주
학습 주제(차시)		장조의 으뜸음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	30분
학습 목표		◎ 장조의 으뜸음을 알고 찾을 수 있다.			
준비물		리듬악기, 탕탱볼(중간크기)또는 줄, 자일로폰			

(1) 도 입(5')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넣어서 인사노래를 부른다. ‘양치해요’를 인사노래의 리듬 반주로 사용한다[악보 7].

(2) 전 개 1(12')

- ① 교사는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아이들은 조용히 듣는다[악보 9].

딸 국

노주환 곡

[악보 9]

- ② 교사가 손기호로 ‘후’ 부분을 표시할 때 아이들도 들으면서 ‘후’ 음에서 손기호로 표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도’ 부분을 표현한다.
- ③ ‘빠라 ○후 빠라뽐 빠라 ○후 빠라뽐 빠라○후 빠라뽐 ○후 빠라뽐~’
‘비어 있는 자리의 음을 마음속으로 들어보세요’라고 질문하며 선생님들의 노래를 부르며 ‘후’ 소리에서 친구와 공굴리기 활동을 한다. 이 때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서 줄을 서로 잡고 당기기를 세 번 정도 반복한다.

(3) 전개 2(8')

- ① 노래하면서 ‘도’ 건반만을 남겨둔 자일리폰을 연주하면서 으뜸음 ‘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② 집중을 위해 작은 소리로 노래하며 “후”부분만 자일로폰으로 연주한다.

(4) 정 리(5')

같이 제창한 후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동과 부모는 선율을 노래하고 교사는 화음을 노래한다[악보 10].



[악보 10]

◆ 예시수업 4 : 산왕의 궁전에서(신체표현+놀이를 통한 음악수업)

주	4주	제 재 곡	산왕의 궁전에서	활동	신체표현, 놀이
학습주제(차시)		리듬 ♩ ♩ ♩ ♩, ♩ ♩ ♩		수업시간	30분
학습 목표		◎ 4/4의 리듬을 신체로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다.			
준비물		리듬악기(핑거심벌즈, 템버린, 테북 등), 긴줄			

(1) 도 입(4')

교사는 인사노래에 상성부를 부르며 다양한 화음을 경험한다.

(2) 전 개 1(9')

① 다같이 ‘뱀’으로 리듬을 노래하며 같이 걷는다[악보 11].



- ③ 교사가 코다이 리듬읽기를 선창하고 아이들이 따라한다.
- ④ 교사가 멜로디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때 템포의 변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템포로 노래하며 가능한 악센트를 표현한다.
- ⑤ 아동이 선율을 노래 할 때, 템포변화를 나타내며 노래한다[악보 12].

산왕의 궁전에서



[악보 12]

- ⑥ 활동이 익숙해지면 프레이즈를 단위로 ‘달팽이’ 모양으로 걷기 활동을 시도한다[그림 1]. 활동을 통해 절(phrase)의 바뀌는 부분을 경험한다.
- ⑦ 음악을 들으며 달팽이 모양으로 걷는다. 모두 박자에 맞추어 자유롭게 빠르기를 표현하고 곡의 빠르기에 따라 보폭의 변화를 신체로 표현 한다.



[그림 1] 달팽이 대형

(3) 전개 2(14')

- 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감상, 아이들은 자유롭게 상상한다.
- ② 음악에서 마왕, 공주 등의 인물을 악기로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두 모듬으로 구성하여 리듬을 각 각 모듬끼리 소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다양한 리듬아기로 어울리는 소리를 찾고 리듬 오스티나토를 함께 만든다.
- ③ 두 모듬으로 나누어 리듬 오스티나토를 만든다. 먼저 교사가 예를 제시하고 각 모듬을 도와 리듬 오스티나토를 정리하고 완성하게 한다.
- ④ 모듬별로 완성된 오스티나토와 제재곡을 같이 연주하게 한다. 이때, 제재곡은 너무 크지 않게 리듬과의 어울림을 듣게 한다.
- ⑤ 모듬1과 모듬2를 합주하게 하고 서로 어울림을 경험하게 한다.

(4) 정 리(3')

저음 화음 반주와 함께 굿바이송을 노래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자가 아동의 음악 감수성 계발을 위해 수행한 음악 학습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수업 즉 언어적 통제나 설명이 없이 음악 활동을 수행하여도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음악적 반응을 할 수 있었다. 아동이 자신의 음악적 생각을 ‘음’으로 또는 ‘신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화음을 제시하는 교사의 시범창에서 아동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고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보기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음악 상황극과 음악극 등의 활동을 경험하며 언어가 아닌 음악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한 선율과 리듬을 아동들이 오디에이트하여 생활 속에서 순간마다 학습한 선율이나 리듬을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찬트하였다. 더 나아가 음악 활동을 할 때 음악에 대한 공포감이나 낯설음을 벗어나 행복을 느끼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같이 노래하기와 합주하기를 경험하며 아동은 부모나 친구 그리고 교사와 함께 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어 사회성이 향상되었다. 다른 사람의 음에 귀 기울이며 박자를 맞추고 소리를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배려하는 태도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12주의 수업이 끝난 후 4명의 아동은 합주에서 형성되는 화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고 합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음악교육은 신체적 연령 발달과 더불어 음악적 연령을 반드시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신체 발달, 인지 능력과 감각 기관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이 주어질 때 비로소 음악적 능력을 최대로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이 음악 활동을 수행하며 흥미를 느끼고 직접적인 활동을 경험해야 진정한 음악 감수성 교육이며 학습내용에 대한 오디에이션 능력을 가지게 된다. 아동 스스로 소리 탐색을 통해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자발성과 자율성을 배제하고 교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이끌어 가는 수업보다는 학습적인 놀이와 함께 지적 경험을 하는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아동 음악교육에서 음악적 지식이나 기술 습득보다는 들리는 소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하는 수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소리인식 능력은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귀 기울여 듣는 소리를 통해서 서서히 형성된다(Ortiz, 2001). 음악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소리에 대한 인식능력은 증진되고 주의력이 높아지며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력이 계발된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소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넷째, 아동이 재미있게 음악 개념을 지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학습 소재 발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와 더불어 음악이야기, 음악 구연 동화, 음악극 등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들에게 적합한 노래와 찬트 그리고 감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음악 활동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음악 지식과 기술 그리고 아동의 음악 감수성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해 교사 교육기관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음악적 훈련과 다양한 교수법 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른 다양한 음악교수법과 음악교재의 개발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장 교육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에게 음악은 언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하며,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음악 감수성을 자극하고 계발하는 음악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효정(2010). 감상 놀이를 통한 음악 개념 지도안 개발
김소향(2006). 발달에 적합한 유아노래지도 프로그램, 양서원.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53호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김은주(2009). 음악놀이를 이용한 기초음악 활동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여정(2011). 어린이집의 음악교육실태 조사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12). 수업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 본 유아음악활동 실태 및 개선점. *예술교육연구*. (19) 1-20.
- 심성경(2008). *아동 음악과 동작교육*. 양서원.
- 안재신(2004). *유아음악교육*. 교육과학사.
- 오정숙, 권정희(2007). *유아음악교육*. 창지사
- 원정애(2011). *유아음악교육의 새로운 지도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에스더(2003). 음악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달크로즈의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 (12).
- 이영애(2009). *유아음악교육 실제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교사교육의 방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이영주(2005). *유치원 음악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2007). *조기 음악교육이 청소년 음악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2010). *음악교수법: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고든·포팔적 음악성*. 서울: 학지사.
- 임부연, 최남정, 양혜련(2010). *유아교과교육론*, 공동체.
- 정우희(2009). *부산 시내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음악교육환경 실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경(2004). *Carl Orff교수법을 적용한 유아기 학습 지도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진원(2010). 음악적 창의성: 활동유형별 특성 및 사고과정을 통한 재조명. *예술교육연구*. (14). 77-94
- 하정희(2009). *어린이의 리듬과 즉흥연주를 위한 상상놀이*. 음악활동. 공동체,
- 하정희, 조형진, 강혜정(2010). *유아음악교육*. 공동체.
- Abeles, H. F., Hoffer, C. R. Klotman, R. H. (2000). *Foundation of Music Education*. New York: Schirmer Books.
- Campbell P. & Scott-Kassner C. (2006). *Music in Childhood: From Preschool through the Elementary Grades*. Belmont, CA: Tomson Corporation
- Choksy, Lois. (1988). *The Kodály Method: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from Infant to Adult* (2n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Choksy, Lois. (1999). *The Kodály Method II: Folksong to Masterwork*.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 Hall.
- Elliot, D. 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55)
- Gordon, Edwin E. (1997). *Learning Sequences in Music: Skill, Content, and Patterns*.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 Gordon, Edwin E. (1997). *A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 Shulman, L.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vard Educational Review, 96(3), 2-14.
- Ortiz, J. M.(권혜경 역), 음악으로 기르는 내 아이 행복한 아이, 국일미디어, 2001

ABSTRACT

**A Study of the Teaching Plans for
Developing Young Children's Music Aptitude**

Kim, Young-Mee · Hong, Jung-Yeon

The researcher conducted 12-weeks program for developing children's musical activities based on the stages of Gordon's preparatory audiation. Classes were consisted with expressing body movement, experiencing rhythm and melody, and chord/harmony in a variety of learning activities. Children were exposed and explored by various sounds, music instruments and media for activities which stimulate music creativity. Children learned melodies, rhythms, and harmonies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body movements, singing, playing musical instruments. The researcher present lesson plans to make children enjoy music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music education through cultivating the habit of listen and appreciate music in addition to develop children's creativity and music aptitude.

key words: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music aptitude, lesson plans for music class,
preparatory audiation

투고일: 2012년 12월 31일, 심사(수정): 1월 24일(2월 18일), 게재 확정일: 2월 22일